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 표고버섯 원목재배 자동화 '잔걸음'

표고버섯 원목종균 자동 접종기 입찰 제안서 평가위 개최

원목 재배 스마트팜 개발로 농가 고령화·경영난 해소 기대

장흥군 버섯산업연구원(원장 이승주)은 지난 3월 29일 연구원 세미나실에서 '표고버섯 원목종균 자동 접종기 설계 및 개발'을 위한 입찰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평가위원회는 장흥군 관내 산·연·관 전문가 7명을 평가위원으로 위촉해 입찰 업체의 제안 설명과 분야별 기술능력 평가가 이뤄졌다.

표고버섯 원목종균 자동 접종기는 노동력 위주의 전통적인 재배 방식에서 벗어나 원목 천공부터 종균 접종, 활착, 오염 관리 등을 자동화하는 장비로, 연구원에서는 2017년부터 장비 개발을 위한 사전 연구를 추진해 왔다.

일본에서도 이미 유사 장비가 개발되어 농가에서 활용되고 있으나,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해 수입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지역 실정에 맞는 우수한 국산 장비를 개발할 방침이다.

이달 중 입찰 업체의 계약 절차가 마무리되면 4월부터 본격적인 실시설계와 시제품 개발을 추진해 2023년에는 농가 활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개발 과정 중 지속적으로 농가의 의견을 수렴해 장비의 완성도와 실용

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승주 장흥군 버섯산업연구원장은 "농가의 고령화와 경영난 속에서 우리군 표고버섯 재배도 생력화를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며 "빈틈없는 자동화 장비 개발로 장흥 표고버섯의 안정적인 생산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흥군 버섯산업연구원은 지난해 말 산림청의 스마트 산림경영 혁신성장 기술개발 사업비 11억 원을 확보해 이번 자동화 장비 개발과 연계·추진하여 표고버섯 원목재배의 스마트팜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장흥=김도영기자



진도군, 윤재갑 국회의원 초청 정책 간담회 가져

지역현안 공유 및 군정 발전 위해 다양한 의견 논의



진도군은 윤재갑 국회의원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내년도 국비예산

확보를 위한 공조체계 구축에 나섰다. 3월 31일 밝혔다.

이동진 진도군수, 윤재갑 국회의원과 보좌진, 박금례 의장, 도의원, 군의원, 현안 관련 국·실·과·사업소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국도 18호선 기점 변경, 해안일주도로 국도 77호선 승격, 국립 한국민속예술대학 건립 등 6개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설명과 함께 국비 확보대책 및 주요사업 추진 건의와 지역 발전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내년도 주요 국비확보 대상 사업으로 국민해양안전관 운영비 지원, 소포지구 국가관리 방조제 개·보수, 진도항 합선·도교 설치 사업 등 총 6개 사업 추진에 대해 지원 건의했다.

이동진 진도군수는 "상권르네상스 사업과 지역특화형 문화시설건립사업 등 국비예산 확보는 물론 4차 재난 지원금에서 영세 농어민지원과 농촌 고용인력 대책 등을 반영시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진도군 발전을 위해 자주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재갑 의원은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는 공직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면서 "진도군 발전을 위한 현안사업들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 적극 관심을 가질 것이며, 지역발전과 예산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도군은 지역 현안 사업의 정부 정책 반영과 국비 확보를 위해 윤재갑 국회의원과의 함께 협력하고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진도=조성용기자

완도군, 215억 투입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고금·금당·보길·생일면

완도군은 농어촌 마을과 도서지역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고금면 가교리와 금당면 가학리, 보길면 정동리, 생일면 서성리 4개 지구에 215억 원(국비 151억 원)을 투입해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군은 4개의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을 통해 하수관로 15.4km를 매설하고, 하수 처리장 신설을 통해 하루 하수 처리량을 335톤 증가시킬 계획이다.

해당 사업이 완료되면 734가구 1,454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군은 신규로 노후화 내리, 약산면 어두리, 보길면 부항리 3개 지구에 대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해 2022년도에 사업을 착공, 2024년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각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는 하수관로를 통해 하수처리 시설에 모아져 오염 물질 제거 등 정화 과정을 거쳐 바다로 배출되게 되며, 가정 내 악취 제거와 위생 향상은 물론 바다 수질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완도=이민혁기자

강진군,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 추진

원예농산물 생산농가 대상 164동 9억 8천만 원 지원

강진군은 화훼·과수·채소 등 원예농산물 생산농가를 대상으로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농산물의 신선도를 유지하고 출하시기 조절로 농산물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으로 164동을 지원하고 9억 8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대상자 선정은 화훼·과수·채소 2ha 미만의 원예농산물 재배농가 중 읍·면에서 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심의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확정하였다.

또, 지난 1월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의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시공 능력, A/S 등이 검증된 8개 전문 시공업체를 심사 확정 발표하였으며, 검증된 업체



에 한해서 금년도 보조사업 시공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였다.

송승언 친환경농업과장은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를 비롯한 다양한 농업인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을 통해 농산물 경쟁력 제고로 농업인이 실질적인 소득 증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강진=김영일기자

해남군, 양식장 친환경부표 교체비용 80% 지원

추가 군비투입 어민부담 30%→20%로 경감...친환경부표 확대 박차

해남군이 2021년도 친환경 부표 보급 활성화를 위해 어민 부담 비율을 20%까지 낮췄다. 이를 위해 군비 보조율을 10% 늘려 38%까지 확대하고, 국도비 42%를 더해 총 80%까지 지원을 실시한다.

군은 2021년도 친환경 부표 보급을 위해 지난해에 비해 276% 늘어난 사업비 32억원을 확보하고, 친환경 부표 약 32만개를 보급할 계획이다.

친환경 부표 지원율을 80%까지 높인 것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어민

부담을 줄이고, 땅끝 청정바다의 친환경 수산 양식 확산과 해양환경보전을 통한 지속가능한 어업발전에도 탄력을 받게 됐다.

해남군은 미세 플라스틱 알갱이를 발생시키는 등 해양쓰레기의 주범으로 지목되어온 스티로폼 부표를 제로화하고, 2025년까지 전체 양식업에서 친환경 부표 전환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해남군은 2021년 기준 9,607ha, 19만 2,140척의 김양식장을 보유,

전국 2위의 물김 생산량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전국1호 유기수산물 인증을 획득한 '황산 지주식 김'은 1,010ha의 김 양식장에서 스티로폼 부표, 활성처리제 등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물김을 생산하고 있다.

군은 고품질 물김 생산을 위해 김어망 지원, 양식 기자재 공급 등 10여종 사업에 대해 6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며, 지난 2015년부터 페스티로폼 감용기 운영을 통해 128톤, 약50만개의 페스티로폼을



감용 처리 및 재활용함으로써 해안가에 방치되는 페스티로폼 수거 및 처리에도 앞장서고 있다.

명현관 군수는 "이번 군비 지원율 상향 조치가 친환경부표 보급 활성화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땅끝의 청정바다를 보유했던 해남에서 가장 먼저 친환경 부표 보급률 100%를 달성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선제적인 예산 확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